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1회]

金午星

이즘 휴머니즘 또는 知性問題 論하는 이들 가운데는 흔히 生의 哲學, 實存 哲學을 引用하며, 甚하여는 거기에 依據해서 自己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傾向이 濃厚하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生의 哲學, 實存 哲學의 根本精神을 밝게 理解하고 있는가는 大端히 疑問視된다. 무릇 우리가 남의 思想을 引用하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서 攝取하려 할 때에는 그 사람의 斷片的인 言句나 그 表現의 魅力에 사로잡히기 前에 먼저 그 思想의 根本的인 立脚地와 그것의 思想史的 位置를 明確히 洞察한 우에서가 아니면 안된다. 그러지 안하면 그 利用하는 斷片的인 言句가 오히려 自己의 思想을 惡化시킬 危險性이 없지 안흔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이즘 휴머니즘, 知性論者들이 生의 哲學, 實存 哲學을 引用하는 現象에서 明白히 그 證跡이 드러나고 있는 바이다.

生의 哲學, 實存 哲學은 今日 哲學으로서만 아니라 藝術, 또는 廣範한 文化 批判의 領域에서까지 큰 勢力과 影響力을 갖고 있는 것이니, 이 땅의 論者들이 그것을 利用하려 함은 決코 怪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問題는 그것을 밝게 理解하지 못한 데서 오는 弊端이다. 近代 理性主義의 最後의 支柱라 할 리켈트[리케르트]는 生의 哲學을 流行概念의 하나라 하여 痛烈히 嘲笑하 옳음에 不拘하고, 짐멜은 確乎한 信念을 가지고 生의 哲學의 思想史的 位置를 아래와 같이 論斷했다.

古代 希臘의 中心概念은 存在의 理念이었다. 中世에는 神의 概念, 루네산스 [르네상스] 以來에는 自然의 概念이 最高座席을 占했으며, 十七世紀 末부터 는 自我의 概念, 十九世紀에는 社會의 概念이 中心概念이었다. 그러나 二十 世紀에 와서는 世界觀의 構築에 새로운 轉換이 생겨서 生의 概念이 그 中心 位置를 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짐멜의 말과 같이 生의 概念이 二十世紀의 中心概念이 되어 있는가는 疑問이라 할지라도, 하이네만의 指摘과 같이 “生에서 實存에” 즉 今日 知性人의 多大數의 精神生活을 支配하고 있는 實存哲學을 生의 哲學으로부터의 發展으로 본다면, 生의 哲學은 리켈트의 말과 같이 단순히 一時의 流行哲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現象의 勢力만 보고 그것의 價値를 輕斷할 수는 없다. 우리는 生의 哲學, 實存哲學의 現代 知性人의 精神生活을 支配하고 있는 그 勢力에 伴隨하는 惡影響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本論의 目的은 現代哲學의 重要한 潮流의 하나인 生의 哲學, 實存哲學의 現代에 對한 功過를 그 思想史的 位置에서 評價해보려는 것이다.

二

그러면 먼저 生의 哲學은 어떠한 思想史的 根據를 갖고 나타난 것인가? 生의 哲學은 文化批判, 즉 市民文化의 批判者로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理性主義, 機械主義, 自然科學主義에 反旗를 들고 나선 것이 生의 哲學인 것이다. 批判(Kritik)은 危機(Krise)를 語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市民文化의 批判은 벌써 市民文化의 危機를 前提로 한 것일 것이다. 市民文化는 十九世紀에 이르러 그 頂點에 達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頂點은 同時에 下向에의 出發인 것이다. 데칼트[데카르트]에 잇어는 認識의 明哲判明性으로서 생겨진 理性은 칸트에 와어는 벌써 客觀(對象)을 構成하는 主觀的 原理로서 成長했으며, 다시 헤겔에 이르러서는 온갖 現實을 歷史적으로 남겨 노호면서 自己의 길을 스스로 開拓해가는(自己發展) 壯年의 絶頂에 達하였다. 그러나 이리케 自己의 論理를 完成한 理性, 또는 理性主義는 自律的인 너무나 自律的 論理의 過剩 때문에 도리혀 理性의 貧困, 또는 危機를 보혀주게 되었으니, 즉 萬能化한 理性의 論理的 專制에 現實이 順從하지 안함으로써이다. 갈수록 錯雜해가는 現實이 비타민과 같이 싸아 돌린 理性의 論理에 드러맞지 안할 때 그 理性의 論理는 한 개의 空中樓閣과 같이 瓦解의 危機를 當하게 된 것이다. 허나 實狀 이러한 理性主義의 破綻은 機械文明, 自然科學主義의 破綻과 짝한 것이니, 計算과 計劃에 依하여 構成된 近代的인 機械文明, 온갖 市民的인 科學的 施設은 그 計算, 計劃의 過剩 때문에 그 發展의 頂上에서 恐慌과 破綻을 보혀주게 된 것이다. 여기서 自然科學의 領域에서는 理論科學과 應用科學의 矛盾이 暴露되면서 自然科學의 危機까지 絶叫되었던 것이다. 生의 哲學은 이러한 市民文化의 危機를 먼저 省察하고 그 危機를 超剋하려는 意圖를 갖고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生의 哲學은 참으로의 市民文化의 批判者였는가? 그리고 文化의 危

機를 克服할 性能을 갖고 잇는가? 이에 對한 解答이 生의 哲學의 思想史의 位置를 決定해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解答을 生의 哲學의 가장 成熟한 形態인 딜타이, 짐멜에게서 구해보기로 하자.

딜타이는 生의 哲學의 基礎를 構築한 사람이다. 헤-겔의 理性哲學에 對應되는 意志의 哲學을 主張한 소펜하우엘[쇼펜하우어](즉 全自然의 本質인 意志는 際限없는 衝動이었다. 이 盲目的 意志 때문에 現實에는 온갖 競爭과 罪惡이 생겨지는 것이니, 그것을 解脫하지 안코는 人類는 悲劇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 또는 소펜하우엘의 盲目的 意志를 “權力에의 意志”에까지 높여 갖고, 超人의 權力에의 意志에 依하여 人類를 再建하려 한 니-체를, 우리는 生의 哲學의 祖上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生』이 哲學의 中心概念이 된 것은, 딜타이에 왔어 비롯한 것이다.

“生을 生 그것에서 理解하는 것”이 딜타이의 生의 哲學의 根本命題다. 生은 生 以上の 概念을 許치 안는다. 思惟도 生의 背後를 遡及할 수 없다. 왜-그러나 하면 一切의 思惟形式, 範疇, 原理가 오직 生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生의 構造聯關으로서 나타나는 때문인 것이다. 生은 生 그것에 몇지 안코 自己를 모든 客觀態로서 表現한다. 生의 客觀的 表現이 歷史의 內容이다. 그러므로 生을 理解하는 것은 歷史를 理解하는 것이며, 또 反對로 歷史를 理解하는 것은 生을 理解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生은 어떠한 構造를 갖었는가?

生의 第一의 契機는 體驗이다. 體驗은 內的 經驗을 이름이다. 즉 外物을 自己의 對立者로서 經驗하는 것이 아니고 自己의 意識 內部の 事實로서 經驗하는 것을 이름이다. 外界의 모든 事物은 우리의 意識과 結合되는 데서만 現實性을 갖는다. 허나 外物과 結合되는 意識은 理性主義에서와 같이 單히 表象 또는 思惟가 아니고 衝動, 意志, 感情의 聯關인 것이다. 單히 表象이나 思惟는 外物의 現象에만 關係한다. 오직 思惟, 意慾, 情感, 表象의 全體的인 聯關에 依해서만 우리의 自我와 外物의 實存은 確實한 基礎를 얻게 되는 것이다. 生의 構造는 諸衝動, 諸感情의 本이다. 모든 印象 및 表象은 먼저 感情에 依해 注意가 喚起되며 그리하여 知覺과 記憶, 思想系列이 形成되며, 거기에 다시 喜, 苦, 恐, 憤 등이 結合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精神生活, 즉 生의 構造는 全體的 聯關으로서 음즉인다.